

기업의 사회적 책임활동이 조세회피에 미치는 영향

김요환(단국대) · 박준령(부천대)

I. 서 론

본 연구는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활동(CSR :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이 조세회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다수의 선행연구가 기업의 사회적 책임활동과 관련하여 KEJI 지수를 기반으로 연구가 진행되었으나 본 연구는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의 “ESG 평가지수”를 기반으로 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 수준과 개별 기업의 조세회피 간의 상관관계에 대해 실증분석 하였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관련하여 Friedman(1970)은 주주들의 권리(right)를 보호하기 위해 법이나 윤리적 관행을 준수하며 최대의 이윤을 창출하는 것으로 정의하였는데, 이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활동을 비용적인 측면으로 간주하여 주주의 부를 감소시키는 행위로 간주하고 있는 있음을 의미한다. 한편 Carroll(1979)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경제적 · 법률적 · 윤리적 그리고 재량적 책임으로 구분하였고, McWilliams and Siegel(2001)은 법에 의한 요구, 회사의 이득을 넘어서 사회적 선을 위해 나타나는 활동으로 정의하였다. 이처럼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다양하게 정의되었는데, 최근의 선행연구(신유근 2001; Porter and Kramer 2011)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해 일반적인 경제적 책임을 넘어서 보다 넓은 영역에 대한 기업의 책임을 요구하는 공통점을 가진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활동과 조세회피의 관련성에 대한 연구(Hanlon and Slemrod 2009; Sikka 2010; 기은선 2012)가 활발히 논의 되고 있으나 다수의 선행연구에도 불구하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활동에 대한 일관성 있는 결론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활동에 대한 정의를 규명하고, 보다 정성적인 대용치(proxy)를 이용하여 기업의 사회적 책임활동이 조세회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활동에 대한 선행연구들의 혼재된 연구결과들에 대한 이유로 다음의 현상을 주목하고 있다. 먼저 기업의 사회적 책임활동은 주로 기부금 지출수준(박준우 2009; 김형구와 최종운 2011)과 경제정의지수(KEJI index) 그리고 에코프론티어(Eco-Frontier) 평가(국찬표와 강윤식 2011)를 대용치(proxy)로 이용한 연구가 대부분이다. 각각의 대용치는 대상표본이 제한적이거나 기업의 고유한 특성을 반영하기 어려운 단점이 존재한다.

한편 선행연구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활동에 대해 비용의 관점에서 접근하였다. 이들의 선행연구는 주로 기부금과 광고선전비(Fry et al., 1982), 그리고 교육훈련비(정용기 2012) 지출이 기업의 사회적 책임활동의 촉진 유인으로 보고하였다. 이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 수준이 높은 기업일수록 기부금의 지출이 높고, 광고선전비와 교육훈련비 지출이 큰 기업들임을 의미하며, 결과적으로 기업은 사회적 책임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보다 많은 현금의 창출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경영자로 하여금 현금의 유출을 줄이고자 하는 유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결국 적극적인 기업의 사회적 책임활동에 대한 요구가 증가할수록 조세회피에 대한 유인도 증가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특히 유가증권시장보다 비교적 규모가 작은 코스닥시장 기업일수록 이에 대한 유인이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

이에 본 연구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활동에 대한 조세회피 수준을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또한 대상표본의 수가 보다 덜 제한적이며 보다 긍정적인 대응치인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의 ESG 평가지수를 이용하여 연구를 수행하였다.

본 연구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기업 중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의 ESG 평가지수를 입수할 수 있는 3,463 기업-연도 관측치를 통해 분석한 결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활동이 높을수록 기업의 조세회피는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활동이 기업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보다 긍정적인 영향이 더 크기 때문으로 보인다. 또한 코스닥상장 기업의 경우 과도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활동에 대한 요구는 조세회피를 증가시키는 유인으로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음을 중요한 시사점으로 제공하고 있다.

이하 본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II절에서는 선행연구 검토 및 연구가설을 설정하고, III절에서는 표본 및 연구방법에 대해 설명한다. IV절에서는 실증분석 결과를 논의하고, 마지막으로 V절에서 결론을 맺는다.

II. 선행연구의 검토 및 가설설정

1. 선행연구

기업의 사회적 책임활동은 주로 재무적 성과와 시장반응을 중심으로 연구가 진행되었다. 먼저 재무적 성과와 관련하여 Fiebeck and Gorman(2004)은 환경오염의 예방을 위한 투자가 원가절감효과가 높음을 주장하였고, 환경성과가 우수하거나 ISO 14001의 인증을 받은 기업이 그렇지 않은 기업에 비해 높은 수익성을 보고하는 것을 보고하였다(박헌준 2004; 김장환 2005; 김선화 외 2008). 또한 박헌준과 이종건(2002)은 기부행위가 기업 가치와 양(+)의 관련성을 있음을 보고하였고, 장지인과 최현섭(2010)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활동이 기업의 수익성에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하였으며, 정용기(2012)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활동 수준이 높을수록 지속성장성이 높음을 보고하였다. 이들의 선행연구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활동이 기업의 재무적인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의미한다. 즉, 기업의 사회적 책임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이 그렇지 않은 기업에 비해 생산성과 수익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재무적 여유자원이 기업의 사회적 책임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중요한 유인임을 의미한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활동에 대한 시장반응으로 신용등급과 관련하여 선행연구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활동이 우수한 기업이 그렇지 않은 기업에 비해 신용등급이 높게 평가받는 것을 보고하였다(김선화 외 2013; 전홍민과 차승민 2013). 이는 신용평가기관이 기업의 신용등급을 산정하는데 기업의 사회적 책임활동에 대해 긍정적인 프리미엄을 부여하는 중요한 증거로 볼 수 있다.

한편 기업의 사회적 책임활동은 자본비용과도 밀접한 관련성을 갖는다. El Ghoul et al. (2011)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활동 수준이 높을수록 자본비용이 감소하는 것을 보고하였으며, 천치림(2012)은 자기자본비용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활동의 관계를 분석하였는데, 연구결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활동을 수행한 기업의 자기자본비용이 낮은 결과를 보고하였다. 또한 이윤경과 고종권(2013)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활동과 내재자본비용과의 관련성을 분석하였는데, 연구결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활동이 기업의 정보비대칭을 완화하고 내재자본비용을 감소시키는 역할을 수행함을 보고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활동이 재무적 성과와는 별도로 기업의 고유위험을 감소시켜 자본비용이 절감되는 역할을 수행함을 의미한다.

다음으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회계투명성과도 활발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Beaudion(2008)은 기업

의 사회적 책임 수준이 높은 기업이 그렇지 않은 기업에 비해 이익조정을 적게 하는 경향이 있음을 보고하였으며, Kim et al.(2012)는 경영자의 윤리적 책임의식이 재량적 발생액과 실제이익조정을 억제하는 유인임을 보고하였다. 국내 연구도 기업의 사회적 책임활동과 이익조정 사이에 음(-)의 관련성을 보고하고 있다(김선화와 정용기 2013; 최현정과 문두철 2013). 그러나 이와 반대의 연구결과도 보고되었다. Chih et al.(2008)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활동과 이익조정의 관계를 분석하였는데, 기업의 사회적 책임활동 수준이 높은 기업일수록 재량적 발생액을 이용한 이익조정을 적극적으로 수행하고 있음을 보고하였다.

이상의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기업의 사회적 책임활동은 주로 재무적 성과나 자본시장의 반응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며, 대부분 기업의 사회적 책임활동이 기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2. 가설설정

기업의 사회적 책임활동에 대한 유인은 매우 다양하다. 이에 따라 기업이 수행하는 사회적 책임활동은 잠재적인 위험요소를 포함하고 있다. 만일 기업이 사회적 책임 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하지 않는 기업은 투자자에게 위험수준이 높은 것으로 인식될 가능성이 존재(Starks 2009)하며, 낮은 수준의 교육훈련비 지출은 근로자의 의욕을 저하시켜 생산성의 저하로 귀결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결국 기업의 사회적 책임활동은 재무적 성과가 양호한 기업이 적극적으로 실행할 가능성이 높다. 이와 관련하여 Pava and Krausz(1996)과 Knoll(2002)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활동을 기업이 성과제고를 위해 추가적으로 지출하는 비용의 성격을 가지고 있음을 주장하였다. 결국 과도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활동에 대한 지출은 기업의 재무적 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여지가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활동을 비용의 관점에서 조세회피와의 관련성을 분석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연구주제이다. 즉, 적극적인 기업의 사회적 책임활동 수준이 증가할수록 기업의 지출도 증가하는 정(+)의 관계가 존재하여 이를 위한 재무적 자원의 보유를 위해 조세회피의 유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조세회피의 유인은 매우 다양하다. 먼저, 소유구조와 관련하여 고운성 외(2007)는 소유자지배기업이 자본시장에 대한 압력이 경영자지배기업보다 낮아 조세비용을 줄이려는 유인이 크기 때문에 조세회피에 적극적임을 주장하였다. 또한 외국인지분율과 관련하여 박종국과 홍영은(2009)은 외국인지분율과 조세회피가 음(-)의 관련성이 존재함을 보고하였다. 주체별 유인과 관련하여 강정연과 김영철(2012)은 소유구조에 따른 조세회피와의 관계를 분석하였는데, 분석결과 지배주주 지분율, 기관투자자 지분율과 외국인 지분율은 조세회피와 음(-)의 관계가 있음을 보고하였다. 이는 소유구조와 관련하여 지분율의 증가가 조세회피를 감소시키는 유인임을 의미한다.

또한 기업지배구조도 조세회피에 큰 영향을 주고 있다. Shackelford and Shevlin(2001)은 기업지배구조가 조세회피에 중대한 결정요인임을 주장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강정연(2012)은 기업지배구조를 이사회 독립성과 지분율을 이용하여 조세회피와의 관련성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기업지배구조가 우수할수록 조세회피의 효익을 증가시키는 유인임을 보고하였다.

이상의 선행연구를 요약하면 기업의 사회적 책임활동에 적극적인 기업은 전반적으로 재무성과가 우수하며, 이에 대한 프리미엄으로 자본시장에서 높은 신용등급과 낮은 자본조달비용을 부담하게 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그러나 현행 시장에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활동에 적극적인 기업은 그렇지 않은 기업에 비해 기부금 등의 제반비용의 과도한 지출로 인하여 조세회피의 유인이 존재할 것으로 예

상된다. 이는 비교적 규모나 재무적 성과가 적은 코스닥 기업에서 더욱 적극적인 조세회피의 유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활동 수준이 조세회피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실증적으로 검증할 필요성이 존재한다. 본 연구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활동이 조세회피에 미칠 수 있는 긍정적 효과와 부정적 효과를 사전적으로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에 연구의 가설을 다음과 같은 귀무가설의 형태로 설정하였다.

연구가설 : 기업의 사회적 책임 수준이 높을수록 조세회피는 증가한다.

III. 표본 및 연구방법

1. 표본선정 및 자료수집

본 연구의 목적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대용치(proxy)로 한국기업지배구조원에서 공시한 ESG 평가지수를 이용하여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조세회피의 관련성에 대해 검증하는 것이다. 따라서 ESG 평가지수가 공시된 2010년부터 2012년까지의 기업을 대상으로 하였다¹⁾. 대상기업 중 영업환경과 회계변수의 특성이 타 업종과 다른 특징을 보일 수 있는 금융업을 제외하고, 결산시점의 차이로 인한 비교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12월 결산법인으로 제한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또한 연구모형에 포함된 변수별로 상·하위 1%에 해당하는 극단치와 결측치 및 이상치를 제외함으로써 특이한 변수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결과의 왜곡을 방지하였다.

본 연구를 수행하기 위한 재무자료는 (주)한국신용평가정보의 KIS-VALUE에서 추출하였으며, ESG 평가지수는 한국기업지배구조원에서 제공받았다. 이상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최종표본은 <표 1>에 제시된 바와 같이 총 3,463개 관찰치(기업-연)이다.

<표 1> 표본기업 선정절차

구 분	기업-연수(Kospi)	기업-연수(Kosdaq)
표본기간(2010년~2012년) 동안 한국기업지배구조원에서 ESG 평가지수를 공시한 기업	4,110	3,051
회계변수 값이 상·하 1%인 극단치에 해당하거나 재무자료가 불충분한 기업	(1,095)	(2,603)
최종 표본으로 선정된 기업-연수	3,015	448

1)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의 ESG 평가지수는 t년의 평가결과를 t+1년 8월에 공시하고 있다. 따라서 2013년의 평가지수를 현재 공시되지 않아 대상표본에서 제외되었다.

2. 변수정의 및 연구방법

1) 변수의 측정

(1) 조세회피의 측정

본 연구는 조세회피를 Desai and Dharmapala(2006)가 제안한 BTD에서 이익조정 효과 제거하기 위해 총 발생액의 효과를 제거한 잔차를 조세회피의 측정치로 이용하였다. 잔차의 측정방법은 먼저 BTD 계산을 위해 법인세부담액을 박승식 외(2006)의 방법에 따라 추정과세소득을 이용하여 BTD를 계산하였다.

$$BTD = a_1 TA + \varepsilon$$

$$AVO = \varepsilon$$

BTD : (세전이익 - 추정과세소득) / 기초총자산

TA : (당기순이익 - 영업현금흐름) / 기초총자산

추정과세소득 : 법인세부담액/법인세율

(2) 기업의 사회적 책임활동

본 연구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활동을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의 EGS 평가지수²⁾를 이용해 측정한다.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은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2010년부터 ESG 평가지수를 공시하고 있다. ESG 평가지수는 기존의 기업지배구조(G)에 환경평가(E), 사회평가(S) 평가지수를 합산한 종합적인 지수이다. 선행연구의 결과를 보면 기업의 사회적 책임활동은 재무적 상태와 환경관련 지출, 지배구조를 중심으로 분석이 수행되었다. 이에 본 연구는 EGS 평가지수를 기업의 사회적 책임활동에 대한 측정치로 이용하였다.

2) 모형설정

본 연구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활동이 조세회피에 미칠 수 있는 영향에 대한 가설을 검증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회귀모형식을 설정하였다.

$$AVO_{it} = a_0 + a_1 CSR_{it} + a_2 FOR_{it} + a_3 BETA_{it} + a_4 ROA_{it} + a_5 DEBT_{it} + a_6 SIZE_{it} + a_7 YD_{it} + a_8 ID_{it} + \varepsilon_{it}$$

여기서,

AVO : Desai and Dharmapala(2006)에 따른 조세회피추정액

2) ESG 평가지수의 자세한 평가방법은 한국기업지배구조원(<http://www.cgs.or.kr/>) 참조.

CSR :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의 ESG 평가지수
 E :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의 ESG 평가항목 중 환경
 S :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의 ESG 평가항목 중 사회
 G :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의 ESG 평가항목 중 지배구조
 FOR : 외국인지분율
 BETA : 기업의 체계적 위험
 ROA : 당기순이익/기초총자산
 DEBT : 총부채/총자산
 SIZE : 총자산의 자연로그값
 YD : 연도더미
 ID : 산업더미
 ε : 잔차항

위 연구모형식의 종속변수는 조세회피추정액(AVO)이다. 만일 기업의 사회적 책임활동이 조세회피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게 되면 관심변수인 조세회피는 부(-)의 부호를, 부정적인 역할을 하게 되면 정(+)의 부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나머지 설명변수는 선행연구에서 조세회피에 영향을 미치는 통제변수에 해당한다. 외국인지분율(FOR)과 기업규모(SIZE), 부채비율(DEBT)이 높거나 큰 기업은 상대적으로 조세회피에 소극적일 가능성이 높다(박종국과 홍영은 2009). 반면 총자산이익률(ROA)의 경우 그 값이 클수록 조세부담도 증가하기 때문에 조세부담을 줄이기 위해 조세회피에 적극적일 가능성이 높다(고윤성 외 2007). 체계적 위험(BETA)은 기업의 체계적 위험이 조세회피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통제하기 위하여 포함하였고 조세회피와 부(-)의 관련성이 예상된다. 마지막으로 연도별 더미변수(YD)와 산업더미(ID)는 특정 업종과 특정연도가 감사품질에 미치는 영향을 통제할 목적으로 사용하였다.

IV. 실증분석 결과

1. 기술적 통계량 및 상관관계분석

<표 2>는 본 연구에 사용된 주요 변수들의 기술적 통계치는 다음과 같다. KOSPI기업(KOSDAQ기업)의 사회적 책임활동과 조세회피의 평균은 각각 0.3141(0.2708)과 0.010(0.024)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반적으로 KOSPI기업이 KOSDAQ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평가점수를 부여받고 조세회피 수준은 낮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2> 기술통계량

Descriptive Statistics of Variables(KOSPI)

	Mean	Q1	Median	Q3	Std Dev
CSR	0.3141	0.2111	0.3000	0.3711	0.1352
E	0.3117	0.1033	0.3067	0.4700	0.2257
S	0.3043	0.1833	0.3067	0.3400	0.1605
G	0.3762	0.3500	0.3567	0.3800	0.0780
AOV	0.010	-0.012	0.012	0.038	1.9599
FORN	0.1242	0.1157	0.1219	0.2744	0.1368
BETA	0.7162	0.4342	0.6789	0.9461	0.3865
ROA	0.0661	0.0081	0.0607	0.1302	0.1016
DEBT	0.4347	0.2794	0.4377	0.5782	0.2014
SIZE	13.6249	13.2581	13.7095	13.9696	0.6657

Descriptive Statistics of Variables(KOSDAQ)

	Mean	Q1	Median	Q3	Std Dev
CSR	0.2708	0.1978	0.2611	0.3376	0.0839
E	0.2318	0.0767	0.1650	0.4197	0.1806
S	0.2502	0.1867	0.2433	0.3000	0.0952
G	0.2905	0.3000	0.3067	0.3400	0.0555
AOV	0.024	0.016	0.031	0.051	1.8503
FORN	0.0803	0.0107	0.0369	0.1177	0.1051
BETA	1.0863	0.8168	1.1072	1.3652	0.3850
ROA	0.0433	0.0073	0.0425	0.0878	0.1238
DEBT	0.3697	0.2026	0.3595	0.5228	0.1956
SIZE	11.3664	11.1177	11.3435	11.5864	0.3541

<표 3>은 주요 변수 간의 상관관계를 보여주고 있다. KOSPI기업의 경우 사회적 책임활동(CSR)은 조세회피(AOV)와 유의한 부(-)의 관련성이 나타났다. 이는 전반적으로 CSR 수준이 높은 기업일수록 조세회피 성향이 감소함을 의미한다. 그러나 KOSDAQ기업의 CSR은 AOV와 정(+)의 관련성을 보였다. 이는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고 수익성이 낮은 KOSDAQ기업에서 CSR 활동이 비용측면이 높아짐을 의미한다. 한편 통제변수인 FORN, ROA, SIZE는 KOSPI와 KOSDAQ 기업 모두 CSR과 유의한 정(+)의 관련성을 보였고, BETA와 DEBT는 유의한 부(-)의 관련성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수익성이 높고, 기업규모가 크며, 외국인지분율이 높고, 체계적 위험과 부채비율이 낮을수록 기업의 사회적 책임활동 수준이 증가하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조세회피(AOV)와 관련하여 KOSPI와 KOSDAQ 기업 모두 FORN, ROA, SIZE 변수가 정(+)의 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수익성이 높고, 기업의 규모가 크며, 외국인지분율이 높을수록 조세회피 수준이 증가하는 것을 의미한다.

<표 3> 상관관계분석

Correlations(KOSPI)

	E	S	G	AOV	FORN	BETA	ROA	DEBT	SIZE
CSR	0.423 **	0.419 **	0.640 **	-0.301 **	0.371 **	-0.214 **	0.071 **	-0.158 **	0.669 **
E		0.538 **	0.387 **	-0.085 *	0.246 **	-0.114 **	-0.023	-0.205 **	0.513 **
S			0.589 **	0.037 *	0.384 **	-0.178 **	0.098 **	-0.119 **	0.653 **
G				-0.164 **	0.428 **	-0.128 **	0.233 **	-0.114 **	0.652 **
AOV					0.289 **	-0.221 **	0.572 **	-0.669 **	0.208 **
FORN						-0.020 *	0.259 **	-0.157 **	0.476 **
BETA							-0.038	0.235 **	0.265 **
ROA								-0.305 **	0.168 **
DEBT									0.195

**, 5% 수준에서 유의함

*, 10% 수준에서 유의함

여기서,

AVO : Desai and Dharmapala(2006)에 따른 조세회피추정액

CSR :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의 ESG 평가지수

E :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의 ESG 평가항목 중 환경

S :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의 ESG 평가항목 중 사회

G :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의 ESG 평가항목 중 지배구조

FOR : 외국인지분율

BETA : 기업의 체계적 위험

ROA : 당기순이익/기초총자산

DEBT : 총부채/총자산

SIZE : 총자산의 자연로그값

Correlations(Kosdaq)

	E	S	G	AOV	FORN	BETA	ROA	LEV	SIZE
CSR	0.400 **	0.482 **	0.664 **	0.242 **	0.030 **	-0.106 **	0.016 **	-0.111 **	0.288 **
E		0.505 **	0.038 **	0.120	0.058 **	-0.033 *	-0.079 *	0.120 **	0.195 **
S			0.187 *	0.015	0.069 **	-0.150 *	-0.055 *	-0.059 *	0.266 **
G				-0.228 **	0.206 **	-0.120 **	0.280 **	-0.012 **	0.216 **
AOV					0.244 **	-0.195 **	0.592 **	-0.676 **	0.181 **
FORN						-0.147 *	0.336 *	-0.135	0.192 *
BETA							-0.125 *	0.115 **	0.164 *
ROA								-0.287 *	0.081 **
DEBT									0.376 *

**, 5% 수준에서 유의함 *, 10% 수준에서 유의함

2. 회귀분석결과

<표 4>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활동이 조세회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이다. 분석결과 KOSPI 기업의 CSR은 부(-)의 회귀계수를 보였다. 이는 사회적 책임활동 수준이 조세회피 수준을 감소시키는 요소인 것을 의미한다. 즉, 사회적 책임활동 수준이 높은 기업은 활동에서 얻는 긍정적인 효익이 더 크기 때문에 조세회피에는 소극적인 것으로 해석된다. 반면 Kosdaq 기업의 CSR은 정(+)의 회귀계수를 보였다. Chun-Keung Hoi et al. (2013)은 기업의 과도한 사회적 책임활동이 오히려 조세회피를 증가시키는 유인이 될 수 있음을 주장하였는데, 본 연구결과 Kosdaq 기업의 경우 일부 지지되었다. 이는 상대적으로 적은 규모와 낮은 수익성을 보고하는 Kosdaq 기업의 경우 사회적 책임활동이 비용의 측면으로 작용하여 조세회피를 증가시키는 유인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표 4> 회귀분석결과

$$AVO_{it} = a_0 + a_1 CSR_{it} + a_2 FOR_{it} + a_3 BETA_{it} + a_4 ROA_{it} + a_5 DEBT_{it} + a_6 SIZE_{it} + a_7 YD_{it} + a_8 ID_{it} + \varepsilon_{it} \text{ (Kospi)}$$

Variables	1		2		3		4	
	AOV		AOV		AOV		AOV	
	β	t	β	t	β	t	β	t
CSR	-1.418 ***	-4.814						
E			-0.600 ***	-3.733				
S					0.940	4.218		
G							-1.117 ***	-2.722
FORN	1.014 ***	4.887	1.087	5.262	1.033	4.978	1.085	5.226

			***		***		***	
BETA	-0.382***	-5.874	-0.382* **	-5.828	-0.360 ***	-5.567	-0.339 ***	-5.227
ROA	6.627 ***	26.071	6.677 ***	26.228	6.631 ***	26.045	6.616 ***	25.836
DEBT	-6.284***	-47.579	-6.308* **	-47.342	-6.255 ***	-47.378	-6.205 ***	-46.607
SIZE	1.085**	1.475	1.006**	0.118	2.046*	0.832	1.001**	0.015
adj R ²	0.732		0.731		0.732		0.730	
F-value	572.228		568.420		570.012		565.733	
N	3,015		3,015		3,015		3,015	

$$AVO_{it} = a_0 + a_1 CSR_{it} + a_2 FOR_{it} + a_3 BETA_{it} + a_4 ROA_{it} + a_5 DEBT_{it} + a_6 SIZE_{it} + a_7 YD_{it} + a_8 ID_{it} + \varepsilon_{it} \text{ (Kodag)}$$

Variables	1		2		3		4	
	AVO		AVO		AVO		AVO	
	β	t	β	t	β	t	β	t
CSR	2.582 ***	1.069						
E			0.163 **	0.657				
S					0.582 *	1.206		
G							-4.269 ***	-5.228
FORN	0.165 **	0.363	0.134 **	0.296	0.140 **	0.310	0.152 **	0.117
BETA	-0.307 **	-2.597	-0.316 *	-2.685	-0.299 *	-2.520	-0.280 **	-2.439
ROA	5.793 ***	14.790	5.760 *	14.679	5.831 *	14.806	5.317 ***	13.624
DEBT	-6.279 ***	-23.974	-6.278 ***	-23.949	-6.264 ***	-23.894	-6.334 ***	-24.870
SIZE	0.159*	0.383	0.116 **	0.769	0.059 *	0.389	0.102 **	0.016
ΣID	Included		Included		Included		Included	
ΣYD	Included		Included		Included		Included	
adj R ²	0.752		0.750		0.722		0.766	
F-value	194.758		194.343		194.940		210.052	
N	448		448		448		448	

V. 결 론

본 연구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활동이 조세회피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선행연구와의 차이점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활동을 ESG 평가지수를 이용하고 보다 넓은 측면에서 조세회피와의 관련성에 대해 실증분석하고, 선행연구들의 일관되지 못한 결론에 대한 재해석의 측면으로 KOSPI 기업과 KOSDAQ 기업으로 대상을 나누어 연구를 수행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대상기간은 2010년부터 2012년까지 3년간이며 기간 동안 한국기업지배구조원에서 ESG 평가지수를 보고한 기업을 대상으로 실증분석 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활동 수준이 높은 기업일수록 조세회피 수준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활동의 긍정적인 효익이 부정적인 효익보다 큰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KOSDAQ 기업의 경우 사회적 책임활동 수준이 높을수록 비용지출의 부담이 조세회피를 증가시키는 유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실증결과는 향후 적정수준의 사회적 책임활동에 대한 필요성을 보여준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

본 연구에서 연구의 대상 표본이 상장된 제조기업 전체가 아닌 평가지수가 부여된 기업만을 대상으로 한정하여 분석하였기 때문에 표본에서 생긴 오류일 가능성도 존재한다. 또한 사전에 고려하지 못한 변수에서 오는 측정오차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추후 연구에서는 적절한 통제변수를 선정해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 기은선(2012), “기업의 사회적 책임활동이 조세회피 및 조세회피에 대한 시장반응에 미치는 영향”, 세무학연구, 29(2), 107-136.
- 국찬표·강윤식(2011), “기업의 사회적 책임, 지배구조 및 기업가치”, 한국증권학회지 40(5), 713-748.
- 고윤성·김지홍·최원욱(2007), “조세회피와 기업특성 및 기업가치에 관한 연구”, 세무학연구, 24(4), 9-40.
- 김선화·정용기(2013), “기업의 사회적 책임활동과 실제이익조정”, 세무와회계저널, 14(6), 227-259.
- 김선화·정용기·김원신(2013), “환경규제위반이 장기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 환경정책, 20(1), 107-135.

- 김형구 · 최종윤(2011), “기업의 사회공헌활동과 재무성과의 관계에 대한 연구”, 회계정보연구, 29(2), 83-102.
- 박승식 · 장지인 · 정길채 · 배성태(2006), “기업지배구조와 이익조정의 관련성에 대한 실증연구”, 회계정보연구, 24, 213-241.
- 박준우(2009), “기업의 사회공헌활동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대리비용이론과 가치확대이론”, 산업경제연구, 22(4), 1939-1960.
- 박종국 · 홍영은(2009), “조세회피와 외국인지분율”, 세무학연구, 26(1), 105-135.
- 박헌준 · 이종건(2002), “기부와 환경보호: 기업의 사회공헌활동과 재무적 성과간의 관계에 관한 실증적 연구”, 인사조직연구, 10(1), 95-133.
- 신유근(2001), 사회중시경영: 기업과 사회, 경문사.
- 이윤경 · 고종권(2013),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내재자본비용과 정보비대칭에 미치는 영향”, 회계저널, 22(5), 159-193.
- 장지인 · 최현섭(2010),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과 재무성과의 관계,” 대한경영학회지, 23(2), 633-648.
- 전홍민 · 차승민(2013), “기업의 사회적 책임활동이 신용등급에 미치는 영향”, 세무와회계저널, 14(6), 203-225.
- 천미림(2012), “기업의 사회적 책임활동이 자기자본비용에 미치는 영향”, 회계정보연구, 30(4), 289-312.
- Beaudoin, C. A.(2008), "Earning management: The role of agency problem and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Paper for the Degree of Philosophy, Drexel University.
- Carroll, A.(1979), "A Three-dimensional conceptual model of corporate performance," The Academy of Manag.
- Chih, H. L., C. H. Shen & F. C. Kang(2008),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investor protection, and earnings management: Some international evidence," Journal of Business Ethics, 79, 179-198.
- Fibeck, G. & R. Gorman(2004),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environmental and financial performance of public utilities", Environmental and Resource Economics, 29, 137-154.
- El Ghou, S., O. Guedhami, C. Kwok and D. Mishra(2011), "Does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affect the cost of capital?", Journal of Banking and Finance, 35, 2288-2406.
- Friedman, M.(1970), "The social responsibility of business is to increase its profits," New York Times Magazine, 13, September, 32-33.
- Fry, L .W., G. D. Keim & R. E. Meiers(1982), "Corporate contribution: Altruistic or for profit?", Academy of Management Journal, 25(1), 92-106.
- Kim, S. H. & Y. K. Jung(2012), "The monitoring power of foreign ownership on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Evidence from Korea," Korean Accounting Review, 37(2), 1-62.
- Starks, L. T. (2009), "Corporate governance and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What do investors care about" What should investors care about?", The Financial Review, 44, 461-468.